

대구여성과 농촌여성의 패션리더쉽에 대한 비교 연구

노 경 미·김 민 자*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대학원

Fashion Leadership as Related to Attitudes Toward Change and Socioeconomic Level among Adolescence Woman

—Comparison of the Dae Gu Urban and Rural Fashion Leaders—

Kyung Mi Noh · Minja K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86.1.30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fashion leaders in relation to attitude toward change and socioeconomic level among Dae Gu woman as well as among rural women living on the suburbs of Dae Gu; and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urban women in a mass society with the rural women living in a traditional society.

Measures selected for this study consisted of the Schrank Fashion Opinion Leadership Inventory(1973), the Schrank and Sugawara Attitudes Toward Change Inventory(1977), and socioeconomic level. The fashion Innovation Inventory was developed by author which consisted of a list of clothing and accessory items selected after surveys to local stores, campus, and main streets, and study of fashion magazines for the current seasons. The data from 280 respondents were analyzed b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alysis of variance, and t-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fashion leadership and socioeconomic level for both urban and rural women. High attitude toward chang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high fashion innovativeness and high fashion opinion leadership among the urban group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fashion opinion leadership and attitude toward change among the rural sample.

2)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attitude toward change scores of four urban sub-sample groups; fashion innovators, fashion opinion leaders, fashion innovative communicators(who exhibit high scores on both fashion innovativeness and fashion opinion leadership), and non-fashion innovative communicators.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attitude toward change scores of four rural sub-sample group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socioeconomic level of four sub-sample groups for both urban and rural women.

* 덕성여자대학 의상학과

* Duksung Women's College, Dept. of Fashion Design

I. 서 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면에서 오늘날의 사회는 도시와 농촌으로 대별할 수 있다. Rogers(1962)¹⁾는 가치관의 차이로써 비교하여 농촌은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며 도시는 근대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이해의 초점이 되며, 이 도시사회는 선구적, 변화지향적 특성이 강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인은 농촌인에 비하여 革新에 好意的이고 새로운 아이디어 受容에도 적극적이라고 한다. 反面에 궁극적으로는 근대적 도시환경의 특성으로 변천하여 가는 것이 사실이나 일반적으로 그 속도가 완만하여 전통적 경향이 짙은 것이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가치관인 것이다²⁾. 이는 유교적 생활양식이 만연한 풍토에서 性格이 형성되었고 相互依存의 위계질서로 인한 권위위에 인간관계를 이루며 비판보다는 인종이, 창조보다는 전통이, 자아보다는 타인의 존재에 대한 관념이 유지되어 온 결과이며, 전통적 윤리기준에서 농촌여성에게는 정숙과 복종의 미덕등이 강요되어 왔다.

최근,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 근대적인 가치관에 대하여 한복의 착용도 내지는 서양복의 수용정도, 패션 리더쉽에 관한 연구(강혜원³⁾, 권윤희⁴⁾, 김민자⁵⁾)가 도시 혹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도시여성과 농촌여성을 비교한 패션 리더쉽에 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Blumer(1969)⁶⁾는 패션이란 급격히 변천하는 근대 사회속에 적응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조절자로서, 군중행동의 한 양상을 반영하며, 패션 그 자체의 파급되는 독특한 성향에 대한 이해는 현대 인간 행동을 파악하는데 많은 기여가 있다고 하였다. 도시여성과 마찬가지로 전통적 가치관 위에 살고 있는 농촌 여성도, 인간이므로 급격히 변하는 현대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패션을 좇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므로 本 研究는 패션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변화지향태도, 사회경제수준에 따른 패션리더쉽을 대구 근교 농촌과 대구시내를 택하여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青年期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의복이나 패션에 대한 관심

青年前期는 年齡週기로 볼 때 13, 14세에서 주로 시

작되며, 青年後期는 18, 19세에서, 24, 25세로 일반 학자들은 구분하고 있다⁷⁾. 신체적, 심리적인 면에서 청년기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도기이며, 자아에 대한 태도가 근원적으로 변하고, 사회적 행동의 변화에 민감하며, 소속감에서 안정을 느끼는 시기로서,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의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의복에 대한 만족·불만족의 정도가 기분이나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Ryan(1966)⁸⁾은 언급하고 있다. Katz와 Lazarsfeld(1955)⁹⁾도 패션을 연령주기와 관련하여 연구한 결과, 청년기는 어느 시기보다 패션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며, 패션 오피니언리더쉽의 비율도 중년기에 비해 5배정도 높다고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강혜원(1974)¹⁰⁾의 자료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패션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저학년 일수록 패션에 관심이 높고 고학년일수록 개성적인 의상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윤희(1969)¹¹⁾는 한국 여성에게 소개된 13가지 스타일의 서양복이 나이, 직업, 교육수준에 따라 수용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나이와 교육수준이 서양복수용에 깊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젊은층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형태의 서양복을 소유하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2. 농촌사회 구조의 변화

이만갑¹²⁾은 한국농촌사회의 구조와 변화에서, 농촌 인구의 도시진출과 도시지역 발전의 波及으로 생활수준과 문화수준이 향상된 반면, 동족결합과 신분차별의식이 물질에 많은 가치를 둠으로서 약화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단체 참여도와 주민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배층이 形成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교통수단, 매스 미디어의 발달과 보급, 기술문화의 보급등에 의하여 농촌사회가 도시화의 추세로 되어가고 있다고 김태영(1980)¹³⁾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 농촌사회의 의식태도 변화에 대하여 이만갑(1981)¹⁴⁾은 한국의 농촌사회가 이제는, 다분히 傳統性을 버리고 近代化되어 가고 있다고 前提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매스 미디어의 確保와 교육수준의 向上으로 합리적, 능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자기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도달하는 적절한 방법을 講究할 能力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농촌과 도시사이의 패션의 認識에 대하여 연구한 Bullock(1970)¹⁵⁾에 의하면, 농촌사회에서는 의복의 변화속도가 여건히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의

異動이 적고 비교적 동질적 집단구조를 가짐으로써 相互의 경향을 잘 알고 있으며 의도로서 사람을 평가하는 정도가 적은 농촌사회의 특성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효재, 김주숙(1977)¹⁶⁾은 농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 조사에서, 농촌가정의 86.4%가 가족의 옷을 대부분 사입는다고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농촌의 의생활면에 커다란 변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3. 새로운 아이디어나 패션의 수용에 대한 일반적 이론

종래의 사회학자 Simmel¹⁷⁾, Barber¹⁸⁾는 하향전파설(Trickle Down Theory)을 提示함으로써 패션을 계층구분의 상징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King¹⁹⁾은 근대사회의 사회환경의 변화와 매스 미디어의 보급, 기술문화의 발달의 이유를 근거로 동일 사회계층 내의 수평적 흐름인 수평전파설(Trickle Across Theory)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Myers(1971)²⁰⁾, Schrank 와 Gilmore(1973)²¹⁾, Baumgarten(1975)²²⁾, 그리고 한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김민자(1978, 1982)²³⁾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수준과 패션리더쉽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결과는 비교적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인내에 있어서는 계급구분의 욕구로 패션을 쫓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기혼녀를 대상으로 패션리더쉽을 연구한 김영숙과 김민자(1984)²⁴⁾의 연구 결과는 사회경제수준과 패션리더쉽은 많은 상관관계로 신분상징의 수단으로서 의복을 선택하는 경향이였다. Klapp(1969)²⁵⁾은 고도로 발달된 산업문화, 도시문화권내에서 대량 생산으로 인한 획일성에 대한 도전으로 현대인은 패션을 통하여 인간상실의 회복과 주체의식을 갖고자 한다고 하였다. 즉 패션은 자아 표현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는 오늘날과 같은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변화지향의 역할이 큰 사람이 자기 표현의 일환으로써 패션을 주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Troxell(1973)²⁶⁾은 일반 대중들은 새로운 패션이 시작되면 이를 受容하고자 하는 욕망과 동시에 망설이게 되고, 새로운 형태에 익숙해져야만 비로소 패션을 수용하게 되므로 패션을 주도하는 선구자(Innovator)의 존재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마찬가지로 Greenwood(1978)²⁷⁾도 패션주기의 첫 단계를 革新의 단계로 보고 선구자에 의해 새로운 패션이 주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Rogers(1962)²⁸⁾는 혁신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시기적 측정을 기초로 하여, 선구자층(Innovator), 초기 수용자층(Early Adopters), 초기 대다수 수용자층(Early Majority), 후기 대다수 수용자층(Late Majority), 무관심자층(Laggards)으로 분류하고 선구자층은 변화를 주도하며, 대담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사회적 신분과 활동정도가 매우 높은 젊은층으로 구성되며, 초기 수용자층은 가장 높은 사회적 지위와 교육수준을 가진 젊은층이 주류를 이루고,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구성되며 새로운 idea가 소개되면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을 받고 난 후에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므로, 타인에게 모범을 보여주므로 오피니언 리더쉽(Opinion Leadership)이 강하다고 하였다. 반면 무관심자층은 다섯 부류중 가장 낮은 사회경제수준과 노인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거에 집착하는 특성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Rogers²⁹⁾는 또한 선구자와 오피니언리더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오피니언리더가 선구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일인에서 이중 역할 수행자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도시에서는 변화에 순응하는 규범과 함께 패션선구자가 패션 오피니언리더로서 역할을 함께 하는 이중 역할자가 많으나, 전통과 관습을 중시하는 농촌에서는 오피니언리더쉽은 선구자층 보다 초기 수용자층에서 많이 발휘되므로, 한개인內의 이중 역할자의 비율은 아주 적게 발견되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농촌사회를 대상으로 연구한 Wilkening(1953)³⁰⁾과 Beal and Bolhen(1962)³¹⁾의 연구에 의하면, 농촌에서는 패션 선구자와 오피니언리더의 중복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전통지향적인 농촌과 도시간에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1975년 Baumgarten³²⁾은 패션 선구자와 오피니언 리더의 두 집단의 일치하는 정도와 양쪽 집단 모두에 속하는 사람의 특성을 연구하였는데, 인기상승이 예상되는 스타일에 대해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초기 수용자로 결정할 결과 26.3%가 초기 수용자였으며, 27.7%가 패션 오피니언리더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역할자는 12.1%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Schrank 나 Gilmore(1973)³³⁾, Kim 과 Schrank(1982)³⁴⁾의 연구, 김민자와 김정호(1983)³⁵⁾의 연구들에 의하면 이중역할자의 비율이 Baumgarten³⁵⁾의 연구보다 훨씬 높은 33%, 29%, 33%로 나타났다. Kim 과 Schrank(1982)³⁷⁾의

한국 여대생사이 변화지향의 개인적 특성과 패션리더쉽의 연구에 의하면, 패션 선구자와 패션 오피니언 리더사이에 있어 변화지향태도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 한국 여대생과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미국 여대생 사이의 패션 리더쉽내지는 이종역할자의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III. 연구 방법

1.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패션 선구도와 패션 오피니언리더쉽, 변화지향태도, 사회경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과 Schrank(1982)³⁹⁾가 사용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패션 선구도 측정을 보완하는 시각적 자료로써 슬라이드를 제시하였다.

1) 패션 선구도(Fashion Innovativeness: FI)

본 연구의 패션 선구도 측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1982년에 발간된 Elle와 Harper's Bazaar, 그리고 국내 잡지 衣裝과 엘레강스를 토대로 전반적인 패션 경향을 알아보고자 대구시내의 시장과 거리풍경 조사와 대구시내 양잠결과 대학가를 중심위로 패션 경향을 조사하였고,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장 패션 선구자다운 차림새를 한 대구여성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슬라이드로 제작하였다. 10개의 차림새와 그의 16개 항목의 Accessory 등이 선정되었으며, 슬라이드 모델의 얼굴에 의하여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도록 얼굴 부분은 검게 칠하여 인상효과를 배제하였다. 패션 선구도 측정치의 10개의 차림새 항목에는 김민자와 김정호(1983)³⁹⁾의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응답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할 계획이 있는지를 調査하고 소유하고 있다면 처음 구입한 년도와 계절을 기입토록 하였으며, 10개의 차림새에 대한 객관적인 유행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인기도 측정도구가 포함되었다(아주 새로운 경향은 10점이며 구식이라 거의 입지 않는다가 0점으로 되어 있다).

대구의 여대생 집단이 응답한 패션 선구도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한 차림새 항목의 점수 부여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캠퍼스 내의 인기도 측정도구로써 응답한 10개의 차림새 항목에 대한 인기도의 평균치를 각각 구하고 ② 인기도에 대한 평균치가 가장 높은 순위로 4개의 차림새 항목을 택하여 패션 선구도 측정을 위한 기본 항목으로 정했으며 ③ 4개의 옷차림새 항목에 대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할 계획이라고 응답하

였으면 이 항목들에 대한 인기도 평균치가 한 응답자의 패션선구도로 가산되었다. ④ 더불어 악세사리 16항목에서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할 계획이라고 표시한 각 문항에 대하여 1점씩 부여되었다.

패션 선구도의 가능점수 범위는 0점에서 44.6이었으나, 실제 범위는 대구도시에서 1점에서 32.6, 농촌은 0점에서 32.1의 범위에 있었으며 전체적인 평균치는 대구가 9.7로서 농촌의 5.1보다 높았다.

2) 패션 오피니언리더쉽(Fashion Opinion Leadership: FOL)

FOL은 패션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Schrank의 패션 오피니언리더쉽 측정치로, Likert-type의 20개의 문항이 포함된 질문지이다. 신뢰도 계수는 대구도시가 .89, 농촌은 .66으로 동일한 측정치를 사용한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대구도시는 유사하나 농촌은 비교적 낮았다. 원래는 5단계 평정법이나 좀 더 정확성을 얻기 위하여 0~10까지의 점수로 등급지었기 때문에 가능점수 범위는 0점에서 200점이 되었다. 실제 점수는 도시가 38점에서 164점으로 평균치는 108.6, 농촌은 50점에서 138점이며 평균치는 92.2로서 도시보다 낮았다.

3) 變化志向態度 측정

Schrank와 Sugawara(1982)의 변화지향 태도 측정지를 사용하였다.

변화와 무변화에 순응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긍정적 서술문항 11개와 부정적 서술문항 9개로써 0점에서 10점까지의 점수로 분포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變化志向態度가 큰 것이다. 가능점수 범위는 0점에서 200점이었으나 실제점수는 도시가 29점에서 120점, 평균치는 72.2, 농촌은 41점에서 105점 평균치는 68.9로 낮은 경향이였다.

4) 사회경제수준 측정

주 수입원자의 직업과 교육수준을 포함하는 Hollingshead⁴⁰⁾의 사회경제수준 측정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사회경제수준을 의미한다. 가능 점수범위는 11점에서 70점이었으나 실제점수는 대구도시가 11점에서 63점 평균치는 37.6, 농촌 여성은 22점에서 63점, 평균치는 56.4로 대구도시가 농촌보다 사회경제수준이 높은 경향이랄 수 있다.

5) 패션 4하위집단

Schrank(1970)가 사용한 분류방법과 똑같은 Median point를 채택하였다. 패션선구도와 패션오피니언리더쉽이 모두 높은 이종역할자, 패션 선구도는 높으나 패션오피니언 리더쉽이 낮은 패션 선구자, 패션선구도는

낮으나 패션오피니언리더십이 높은 패션오피니언리더 그리고 패션선구도와 패션오피니언리더십의 점수가 모두 낮은 무관심자의 비집단으로 분류되었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調査對象은 衣服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지는 청년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도시집단으로서 대구시를 농촌집단은 대구시 근교의 농촌지역을 선정하였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전체 청년기 여성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가진 집단이 학생층⁴¹⁾이었으므로 대구시의 K대학교와 H여자대학교 1학년과 2학년 합계 180명을 도시의 청년기 여성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농촌에서는 청년기 인구의 많은 비율이 직장이나 학업을 위하여 도시 移住現象이 빈번하므로 표집에 많은 난점이 있었다. 다행히 섬유진흥센터에서 농촌지역 여성만을 對象으로 하여 短期間 訓練을 시키고 있었으므로 비교적 농촌 여성의 대표 집단으로 간주되어 이를 본 연구의 표집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산군 고아면을 방문하여 모집한 청년기 여성과 함께 총 190명을 농촌의 청년기 여성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1982년 10월 4일에서 10월 31일에 걸쳐 356부가 회수되었고 미완성 질문지를 제외하고 도시 143부, 농촌 137부 총 280부가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3. 통계처리

네 변인, 패션 선구도, 패션 오피니언리더십, 변화지향태도, 사회경제수준에 대한 빈도분포, 평균치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Pearson 상관관계수, F-검증, t-검증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 < 0.05$, $p < 0.01$, $p < 0.001$ 에서 결정되었다. 本 研究의 모든 자료분석은 KAIST에 의뢰하여 SAS 로써 통계처리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패션선구도(FI), 변화지향태도, 사회경제수준과의 관계

패션사이클에서 제일 먼저 새로운 패션을 수용하는 정도인 패션선구도는 變化志向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영가설은 <표 1>에 의하여 부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Pasnack(1969)⁴²⁾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패션을 제 1단계에서 수용하는 선구자들은 좀더 末來志向의이며 변화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인 것이다. 그러나 농촌여성에 비하여 대구도시 여성이 더 변화지향에 적극적이며, 패션 선구에도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흥미롭다.

이는 Rogers⁴³⁾가 도시와 농촌사회에 대한 변화지향과 선구도에 대하여 지적하였듯이, 대구도시는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는 농촌보다 훨씬 변화지향을 추구하는 근대도시의 특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패션이란 이미 계층구분인 신분상징의 수단이 아님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대구와 대구근교 농촌여성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수준은 패션 선구에 있어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도시여성에 있어 - .194, 농촌여성에 있어 - .238로 약간 높은 否의관계를 보여줌으로 패션 선구도는 사회경제수준과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다 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사회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패션에 대한 창시욕구가 큰 경향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2. 패션오피니언 리더십, 변화지향태도와 사회경제수준과의 관계

도시여성에 있어서 패션 오피니언리더십은 변화지향태도와 많은 正的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提示하고 있으나, 농촌여성에 있어서는 상관관계가 없음이 <표 1>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목할만한 결과로서 농촌사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오피니언리더십을 연구한 Rogers(1963)⁴⁴⁾나 Beal과 Bolhen(1963)⁴⁵⁾의 이론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도시사회에서는 오피니언리더십은 급격한 변화지향태도를 갖는 층에서 이루어지나,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농촌사회에서는 오피니언리더십은 어느정도 존경심을 갖고 완전한 변화지향을 추구한 층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도시를 對象으로 연구한 Kim과 Schrank(1982)⁴⁶⁾의 연구와 반대되는 경향이다.

도시여성에 있어 종래의 下向전파설이 적용되고 있다. 즉 $p < .05$ 수준에서 밀접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회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패션오피니언리더십이 높으며 패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여성에 있어 패션 오피니언리더십과 사회경제수준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Rogers(1962)⁴⁷⁾가 제시하였듯이 농촌사회에서 오피니언리더층은 사회경제수준이 높다는 것과 반대되는 결과인 것이다.

3. 패션 선구도와 패션 오피니언리더십

<표 1>에 의하면 도시 여성에 있어서는 .305 유의

〈表 1〉 都市・農村女性の 패션先驅度, 패션오피니언리더쉽, 變化志向態度, 社會經濟水準에 대한 相關關係

	도 시		농 촌	
	패션선구도	패션오피니언리더쉽	패션선구도	패션오피니언리더쉽
패션오피니언리더쉽	.305***		.273**	
변 화 지 향 태 도	.326***	.369***	.173*	.162
사 회 경 제 수 준 ^{a)}	-.194*	-.177*	-.238**	-.046

a) 지수가 낮을수록 사회경제수준이 높다.

* p<.05

** p<.01

*** p<.001

〈表 2〉 都市・農村女性の 下位集團間에 對한 變化志向態度와 社會經濟水準의 F檢證

	도 시			농 촌		
	N	Mean	F	N	Mean	F
	변 화 지 향 태 도			변 화 지 향 태 도		
이 중 역 할 자	42	80.4	10.39(p<.001)	38	70.5	1.05(NS)
패션선구자	30	73.4		32	69.4	
패션오피니언리더	27	71.8		32	70.0	
무 관 심 자	44	63.8		35	65.6	
	사 회 경 제 수 준 ^{a)}			사 회 경 제 수 준 ^{a)}		
이 중 역 할 자	42	33.1	2.56(NS)	38	54.8	0.99(NS)
패션선구자	30	39.1		32	57.5	
패션오피니언리더	27	39.2		32	55.5	
무 관 심 자	44	40.0		35	57.9	

수준 p<0.01로, 농촌여성에 있어서는 .273 유의 수준 p<.01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므로 패션 선구도는 패션 오피니언리더쉽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은 부정되었다. 즉 도시와 농촌의 여성사이에 있어 패션선구도와 패션오피니언리더쉽은 많은 관계가 있는 것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 Myers(1971)⁴⁸⁾, Schrank(1973)⁴⁹⁾, Baumgarten (1975)⁵⁰⁾ 김민자 (1978)⁵¹⁾, 김민자와 김정호(1983)⁵²⁾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이며 패션 선구자는 패션오피니언리더쉽이 높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4. 대구여성과 농촌여성의 패션 4하위 집단사이의 비교

〈表 2〉에 의하면 都市女性에 있어 下位 集團間에 變化志向態度의 平均値 사이에 있어 p<.001의 水準에서 有意한 差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민자의 研究結果와 같은 경향인 것이다. 農村의 變化志向態度는 下位集團間에 있어 有意한 差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傳統的 價値觀으로 完滿한 變化志向態度를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都市의 下位集團間의 變化志向態度에 對한 差異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하였다. (〈表 3〉參照) 검증결과 변화지향태도의 차이는 패션 선구자와 패션 오피니언리더 사이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없을 뿐 그외의 모든 下位集團間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이 중 역할자와 無關心者 사이에는 變化志向의 態度에 많은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패션 리더쉽과 사회경제수준과의 관계에서 〈표 1〉 유의한 차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패션 4하위집단 間에 있어 사회경제수준은 F검증 결과 差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결과는 패션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며 남에게 패션에 대한 충고를 줄 수 있는 오피니언리더 특성을 지닌 이 중 역할자가 패션에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자보다 사회경제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유의할 만한 수준이 아님을 암시하여 주고 있다.

〈表 3〉 都市女性の 下位集團間の 變化志向態度에 對한 t 檢證

	N	평균치	t
이중역할자 패션선구자	38 32	70.5 69.4	2.07*
이중역할자 패션오피니언리더	38 32	70.5 70.0	2.49*
이중역할자 무관심자	38 35	70.5 65.6	5.54***
패션선구자 패션오피니언리더	32 32	69.4 65.6	0.41
패션선구자 무관심자	32 35	69.4 65.6	2.93**
패션오피니언리더 무관심자	32 35	70.0 65.6	2.44*

* p<.05 ** p<.01 *** p<.001

〈表 4〉 都市와 農村女性の 패션先驅度, 패션오피니언 리더쉽, 變化志向態度, 社會經濟水準에 對한 t 檢證

	도시 (N=143)	농촌 (N=137)	t
	Mean	Mean	
패션선구도	9.7	5.1	5.60***
패션오피니언리더쉽	108.6	92.2	6.65***
변화지향태도	72.2	68.9	1.95
사회경제수준 ^{a)}	37.6	56.4	14.15***

a) 지수가 낮을수록 사회경제수준이 높다.

*** p<.001

5. 대구도시여성과 농촌여성사이의 패션리더쉽의 비교

〈表 4〉에 의하면 都市와 農村에 있어 變化志向態度에는 有意水準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비슷한 경향임을 나타내고 있으나 패션 先驅度나 패션 오피니언리더쉽, 社會經濟水準에서는 有意水準 p<.001로써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都市와 農村에서 變化志向態度는 비슷한 경향이나 都市女性에 있어 패션을 먼저 받아들이는 성향이 강하였으며, 패션 오피니언리더쉽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大邱의 都市女性들은 社會經濟水準이 農村女性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V. 結 論

以上の 結果로서 變化志向의 個人的 特性이 패션리더쉽에 많은 影響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變化志向態度는 社會의 傳統的, 近代的 價值觀의 差異에 의한 것이라는 Rogers(1962)⁵³⁾의 理論과 같이 韓國의 農村社會는 아직 傳統的 價值觀을 지니며, 새로운 아이디어의 受容에도 消極的인 面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都市의 近代的 價值觀을 지니는 大邱가 패션리더쉽에 있어서는 積極的인 變化志向態度에 있어 多少 消極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前近代的인 保守性이 殘在하고 있는 것으로 解釋되어 大邱地方의 特性이 近代社會로 向한 過渡期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社會經濟水準과 패션리더쉽의 關係에 있어서는 表面上으로는 相關關係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더 細分化하여 檢證한 結果, 大邱都市와 農村 모두에 있어 社會經濟水準이 패션리더쉽에 影響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패션을 階層區分의 象徴으로 본 Simmel(1904)⁵⁴⁾의 理論을 反駁하였으며, 이러한 全體的인 結果로서 볼 때 Klapp(1969)⁵⁵⁾이 提示하였듯이 패션을 쫓는다는 것은 現 大衆社會에 있어 自我表現의 한 方法 乃至는 手段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提示되고 있다. 앞으로의 研究에 있어서는 變化志向態度 測定道具의 再檢討와 修正, 補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農村地域에 對한 擴大調査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都市와 農村女性の 社會經濟水準에는 有意한 差가 있는 것이므로 都市와 農村에서 類似한 社會經濟水準을 가지는 集團을 選定하여 比較, 檢討할 必要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 1) Rogers, Everett M. and F.F. Schoemaker. Communication of Innovation: A Cross Cultural Approach, New York: The Free Press, (1971)
- 2) 황시연, 전통적 농촌사회의 가치관 연구, 고대석사 학위 논문, (1975)
- 3) 강혜원, 한복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심리학적 의복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7(3), (1979)
- 4) Anspach, K.A. and Y.H. Kwon, "Western Dress Style Adopted by Korean Women, Home Eco-

- nomics Research Journal*, 4, (4), 235-242, (1967)
- 5) 김민자, 김정호, 패션리더쉽에 관한 연구 I, II 「대한가정학회지」 21 (1,2), (1983)
 - 6) Blumer, Herbert, Fashion: From Class Differentiation to Collective Selection, *Sociological Quarterly* 10, 275-291, (1969)
 - 7) 김제한, 청년발달 심리학, 세광공사, (1981)
 - 8)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6)
 - 9) Katz, Elihu and P.F. Lazarsfeld, Personal Influence: The Part Played by People in Flow of Mass Communic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55)
 - 10) 강혜원,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974)
 - 11) Anspach and Kwon, *op. cit.*
 - 12) 이만갑, 한국농촌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출판부, (1976)
 - 13) 김태영, 농촌의 사회변화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지」, 경북대 출판부, 22, (1980)
 - 14) 이만갑, 한국농촌사회연구, 다락원, (1981)
 - 15) Bullock, M.J., Fashion Awareness of Students in Selected Rural and Urban Area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exas Technology University*, (1970)
 - 16) 이효재, 김주숙,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 「농촌 30」, 이대 한국문화 연구원, (1977)
 - 17) Simmel George, Fashion, *International Quarterly* 10, 130-155, (1904)
 - 18) Barber, Bernard, Social Stratification,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57)
 - 19) King, Charles W., Fashion Adoption: A Rebuttal to the 'Trickle Down' Theory, *Proceedings of the Winter Conference of the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Dec. 27-28, Boston, Massachusetts, 108-125, (1963)
 - 20) Myers, Carol Ann, Fashion Opinion Leadership and Fashion Adoption in Related to Social Participation and Favorableness Toward New Styles in University Women's Cloth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Michigan State University, (1971)
 - 21) Schrank, H.L. and D.L. Gilmore, Correlates of Fashion Leadership: Implications for Fashion Process Theory, *The Sociological Quarterly*, 14, 534-543, (1973)
 - 22) Baumgarten, S.A., The Innovative Communicator in the Diffusion Proces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2, 12-18, (1975)
 - 23) Kim, Minja and H.L. Schrank, Fashion Leadership: A two Culture Study Part I, II,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 227-240, (1982)
 - 24) 김영숙, 김민자, 기혼녀의 패션리더쉽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8, 2, (1984)
 - 25) Klapp, O.E. Collective Search for Identit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9)
 - 26) Troxell, M.D. and Judell B., Fashion Merchandising,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1973)
 - 27) Greenwood, K.M., Fashion Innovation and Marketing,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78)
 - 28) Rogers, Everett M., Diffusion of Innov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62)
 - 29) *Ibid.*
 - 30) Wilkening, E.A., Informal Leaders and Innovators in Farm Practices practices, *Rural Sociology*, 17, 272-275, (1952)
 - 31) Beal, G.M. and J.M. Bohlen, The Diffusion Process, Special Report No. 18, Ames, Iowa: Iowa State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1962)
 - 32) Baumgarten, *op. cit.*, 12-18
 - 33) Schrank and Gilmore, *op. cit.* 534-543
 - 34) Kim and Schrank, *op. cit.* 227-240
 - 35) 김민자, 김정호, *op. cit.*
 - 36) Baumgarten, *op. cit.*, 12-18
 - 37) Kim and Schrank, *op. cit.*, 227-240
 - 38) *Ibid.*
 - 39) 김민자, 김정호, *op. cit.*
 - 40) Hollingshead, A.B., Two Factor Index of Social Position,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1965)
 - 41) 경북통계연감, 제 21회, 경상북도, (1981)
 - 42) Pasnak, M.F.D. and R.W. Ayers, Clothing

- Attitude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Fashion Innovators, *Journal of Home Economics*, 61:9, 698-701, (1969)
- 43) Rogers, *op. cit.*, (1962)
- 44) *Ibid.*
- 45) Beal Bohlen, *op. cit.*
- 46) Kim and Schrank, *op. cit.*
- 47) Rogers, *op. cit.*, (1962)
- 48) Myers, *op. cit.*
- 49) Schrank Gilmore, *op. cit.*
- 47) Rogers, *op. cit.*, (1962)
- 48) Myers, *op. cit.*
- 49) Schrank Gilmore, *op. cit.*
- 50) Baumgarten, *op. cit.*
- 51) Kim and Schrank, *op. cit.*
- 52) 김민자, 김정호, *op. cit.*
- 53) Rogers, *op. cit.* (1962)
- 54) Simmel, *op. cit.*
- 55) Klapp, *op. cit.*